

선관위 '대수술' 메스 드는 여야...원포인트 개헌까지 가나

‘참정권 침해’ 사태 선관위 무능 노출
견제 무작동해온 현재 체제 수술대에
여야, 역량 제고·감사 강화 방안 추진
개헌 공감에도 방향 ‘이견’ 논의 주목

6·3지방선거에서 발생한 조유 의 투표용지 부족 사태로 인한 국민적 공분이 이어지면서 선거관리위원회를 국회 차원에서 대수술하기 위한 여야의 재비가 본격화하고 있다.

여야가 선관위의 업무 역량 제고, 선관위에 대한 감사 강화 등 두 가지 방향성을 갖고 구체적인 제도 개혁 검토에 들어가면서다.

정치권에서는 선관위 해체 수준의 전면적인 개혁을 위해선 법률 개정을 넘어 개헌이 필요한 목소리까지 포함해 백가쟁명식 아이디어가 나오고 있어 여야의 논의가 어느 수준으로 수렴될지 주목된다.

현 선관위 체제는 3·15 부정선거로 1963년 탄생했다. 내무부 소속 선거위원회에서 5차 개헌을 통해 행정부로부터 독립된 합의체 헌법기관으로 거듭난 것이다.

그러나 견제와 감시의 사각지대에서 그동안 방치되면서 핵심 업무 수행에도 문제가 생길 정도로 무능력해졌고, 그 결과 이른바 ‘소쿠리 투표’ 사태에 이어 투표용지 부족에 따른 참정권 침해 사태까지 발생하게 됐다.

이에 따라 여야의 제도 개선 초점은 일차적으로는 이번 사태로 드러난 선관위의 ‘무능력’을 개선하는 데 맞춰져 있다.

특히 선거 당일 오전부터 이미 투표용지 부족 가능성을 인지했지만, 상급 위원회의 지휘 부재와 보고체계 미흡 등이 겹치며 참사를 막지 못한 점이 드러나면서 선관위의 효율성과 전문성을 키워야 한다는 문제의식이 더욱 커졌다.

민주당에서는 일단 중앙선관위의 상임위원 수를 늘려 책임성을 강화하는 방안이 거론된다.

현행 제도상 1명인 상임위원을 더 늘리자는 아이디어다. 대법관이 겸임하는 중앙선관위원장 역시 상임으로 뒤야 한단 지적도 있다.

이와 관련, 법률가 출신인 한 의원은 통화에서 “국가인권위원회 형태로 운영하는 방안이 있다”며 “그런 형태로 해서 실질적으로 위원회가 기능할 수 있도록 하는 방향은 어떻까 한다”고 말했다.

인권위는 위원장과 상임위원 3명, 비상임위원 7명 등 11명으로 구성된다.

무소속 한동훈 의원도 선관위원장을 현행 대법관 겸직 ‘비상임직’에서 상임·책임직으로 전환하는 방안을 밝혔다.

이와 함께 정치권에선 선관위 직원들의 인사 및 교육·훈련 체계를 보완·강화하기 위한 법령

개정도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여야는 선관위에 대한 감시 기능 강화를 위한 제도 도입도 검토하고 있다.

민주당의 한 재선 의원은 통화에서 “선관위만 감사하는 기구를 만들든지, 선관위 산하이면서 완전히 독립된 운영체계를 가지는 감사기구를 만드는 방안이 있다”며 “이번 선관위 개혁의 핵심은 감시 기능을 강화하는 문제”라고 말했다.

이와 관련, 국민의힘은 법안도 발의했다.

유용원 의원은 중앙선관위에 감사관을 두고 매년 감사보고서를 정기국회 개최 전까지 국회에 제출하도록 하는 선관위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한동훈 의원 역시 선관위에 대한 감사원의 직무감찰을 가능하게 하는 법안을 발의하겠다고 예고했다.

야당 일각에서는 선관위를 비상설화하고 행정안전부 산하로 옮겨 관리·감독을 받도록 해야 한단 주장도 나온다.

전면적인 선관위 개혁의 관건은 개헌이다.

선관위가 헌법에 그 구성과 기능 등이 명시돼 있는 독립된 기관이라는 점에서도.

특히 헌법이 선관위원을 9명(대통령 3명 임명·국회 3명 선출·대법원장 3명 지명)으로 규정하고 선관위에 대한 파면을 제한하고 있다는 점에서 선관위원 정수를 조정하거나 책임성 강화를 위해 기존보다 파면 사유를 확대하려면 개헌이 동반되어야 한다.

아울러 감사 기능 강화를 위해서도 개헌이 필요할 수 있다.

지난해 헌법재판소가 중앙선관위는 감사원의 직무 감찰 대상에 포함되지 않느냐며 “이는 대통령 등의 영향력을 제도적으로 차단하기 위해 선관위를 독립적 헌법기관으로 규정할 헌법 개정 권자의 의사에 반한다”고 결정했던 점에서도.

이 때문에 보다 전면적인 견제를 위해선 헌법 조문에 선관위 감사에 관한 내용을 포함해야 할 가능성이 있다.

일단 여야 모두 개헌에 대해 열린 입장이지만, 각론에선 이견이 감지된다.

민주당은 선관위의 독립성을 보장한 헌법 정신을 유지하는 가운데 보다 확실한 개혁을 위해 개헌이 필요한 입장이지만, 국민의힘은 선관위 해체에 방점을 둔 개헌을 주장하고 있어서다.

이런 가운데 여야는 각 당에 선관위 개혁 기구를 가동하며 주도권 경쟁에도 나섰다.

민주당은 지난 10일 ‘선거제도 개혁 태스크포스(TF·송기헌 위원장)’를 발족했다. 오는 16일 2차 회의를 통해 개혁안 열거를 논의하고 17일에는 관련 토론회를 연다는 계획이다.

국민의힘 역시 현행법 보완 작업을 위한 TF를 구성할 예정이다. TF 위원장은 나경원 의원이 맡게 될 가능성이 거론된다. /연합뉴스



李대통령 부부, 우피치미술관 방문 이탈리아를 국빈 방문 중인 이재명 대통령과 김혜경 여사가 13일(현지시간) 피렌체 우피치미술관을 둘러보고 있다. /연합뉴스

“與, 진영 아닌 국민 향해야...이상만 고집하면 독선”

李대통령, SNS서 ‘여당 그릇론’ 재강조
“좋은 의도보다 결과 책임이 더 중요해”

이탈리아를 방문 중인 이재명 대통령은 13일 “더 크게 더 넓게 더 멀리 보며, 더 많은 국민과 함께 가자”면서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가져야 할 덕목으로 ‘능력’, ‘책임’, ‘대화와 소통’, ‘포용과 통합’ 등을 재차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엑스(X·엑스)에 올린 1천500여자 분량의 ‘여당과 야당, 그리고 정치적 책임’이라는 제목의 글에서 민주당을 향해 “여당의 열정은 ‘우리 진영’이 아니라 ‘국민 전체’를 향해야 한다”면서 “대결과 배제보다 끊임없는 대화 소통을 통해 갈등을 조정하고 반발을 최소화하는 ‘큰 그릇’ 역할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불가피하게 깨고 나가야(돌파)한다면 깨지는 이들에 대한 배려, 공감도 잊지 말아야 한다”면서 “국민의 위임을 받아 이미 집권했다면 사익 아닌 공익을 향한 가장 뜨거운 열정의

로 고민하되, 가장 차가운 균형감각으로 현실과 이상을 조화시키며, 방하나 난관을 이겨내고 결과에 대해 무한책임을 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전쟁을 통해 점령한 것이라면 배제와 독점이 이상할 게 없지만, 경쟁을 통해 부분의 힘으로 승리해 전체를 대표하게 됐다면, 이제 모두를 위한 포용과 개방은 필수”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 과정에서 여야(與野)의 사전적 정의를 언급한 뒤 “야당은 여당과 정부에 대한 감시, 견제, 공격이 중요하지만, 여당은 주어진 권력으로 책임을 지는 능력과 실적, 포용과 통합이 중요하다”면서 “야당이 군대나 창과 가깝다면 여당은 농사와 그릇에 가깝다는 게 제 생각”이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도 독일 사회학자 막스 베버를 인용하며 균형 감각의 중요성을 역설했다.

이 대통령은 “이상과 현실, 복잡한 이해관계 속에서 정치인들은 자주 길을 잃는데 막스 베버는 정치인이 지녀야 할 세 가지 자질을 주문했다”

면서, 이에 대해 “사익이 아닌 대의에 대한 열정, 자신의 행위가 초래할 결과에 대한 무한한 책임, 현실과 이상 간 균형감각”이라고 소개했다.

이 대통령은 “이상이 없는 현실주의자는 눈 앞의 이익만 쫓는 기회주의자가 되고, 현실이 없는 이상주의자는 해결책 없이 편 가르기에 집중한 무능한 선동가가 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정치가 현실의 제약과 인간의 한계를 무시하고 이상만 고집하면 독선과 진영에 빠지게 되고, 이상을 잃어버리면 단순한 권력 유지로 전략해 현실을 바꾸려만 가치와 지향을 잃지 않되 현실을 냉정하게 바라보는 균형 감각이 필수적”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집권 여당은 신념을 버리지는 않되 신념의 언어보다는 ‘책임의 언어’에 더 집중해야 한다”면서 “이미 쟁취한 권력에 근거한 정책 결정과 집행의 결과가 국민의 삶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므로 집권 세력은 구호나 주장이 아닌 냉철한 균형감각에 의한 실행에 집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연합뉴스

광주시, 정부합동평가 2년 연속 우수

광주시가 행정안전부 주관 ‘2026년 정부합동평가’에서 정성평가 분야 2년 연속 우수기관으로 선정됐다.

특히 국민이 직접 참여한 국민평가에서 ‘광주형 원스톱 응급의료’가 우수 사례로 뽑히며 정

책의 우수성을 인정받았다.

광주시는 올해 정부합동평가에서 정성평가 16개 지표 중 7개 지표가 우수 사례로 선정돼 전국 특·광역시 중 2위를 기록했다. 이번 선정된 정성평가 우수 사례는 ▲청소년이 바꾸는 도시, 광주의 생생 참여 스토리 ▲기억을 넘어 참여로, 시민이 만드는 보훈 광주 ▲위기에 강하고 나눔에 진심인

광주, 나눔의 씨앗이 희망의 꽃으로 피어나다 ▲용기를 재운 광주 굿(Good) 다화용기, 굿바이(GoodBye) 1회용품 ▲광주, 동·서(東西)를 잇고 시·도(市道)를 무다·초광역 협력의 새로운 표준 ▲대중교통·자전거·보행도시 광주! 자전거가 중심이다! ▲맘 놓고 낳고 키우게! 임신·출산, 광주가 책책책 책겨드려요! 등 총 7건이다. /별은진기자



건강검진

매일체크 ✓ 행복체크

예약 및 문의 062)363-4040

(사단법인) 한국건강관리협회 건강증진의원 (광주)

대한의사협회 의료광고심의필 제 260415-중-211304호

